
 국토교통부	보도자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1. 2(화) 총 4매(본문 2, 붙임 2)	
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김준, 전문위원 장승현 • ☎ (044) 201-3755, 4837, 4836	
보도 일시	2018년 1월 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 1. 2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

- 전라북도 익산시, 경상남도 합천군, 충청북도 진천군 총 3곳 -
 - 지역경제 활성화, 양질의 행정·문화서비스 제공, 안전 확보 효과도 기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’의 성공모델 발굴·확산을 위하여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 익산시, 경상남도 합천군,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*을 선정했다.

【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결과】

구분	선도사업 대상	위 치	경과연수
1	• 익산시청사	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안북도 32길 1	47년
2	• 합천군청사	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	39년
3	• 진천군 ^구 전통시장	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20-4번지 일원	41년

-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3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4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조사,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
- 12월 19일 열린 선정심사에서 공익성, 노후도, 사업성, 사업추진 용이성,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.
-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, 시설부족,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
- 리뉴얼을 통해 주변개발여건·지역주민 개발수요·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

- 국토교통부, 해당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(예비위탁사업자) 간 업무 협약체결,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전라북도 익산시청사는 '70년 사용승인 이후 청사 노후화로 인해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상황으로 분산된 청사를 통합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
 - 광장·문화시설·공원 등을 설치하여 주민친화적인 복합공공청사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.
- 경상남도 합천군청사 역시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4곳으로 분산 운영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으로
 -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·다문화가정 지원시설·작은 영화관 등 문화·복지시설 공간으로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충청북도 진천군 (7)전통시장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해 백곡천 북측으로 신축·이전함에 따라 유희지로 관리되어 왔으며
 -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증가하는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복합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“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이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하면서
 - “이번 선도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이 지역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준 사무관, 장승현 전문위원(☎ 044-201-4837, 4836)
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전라북도 익산시청사

○ 위치: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60



- 대지면적: 12,192㎡
- 건축면적: 3,229㎡
- 건폐율(현행/법정): 26.4% / 60%
- 용적률(현행/법정): 91.7% / 250%
- 사용승인일: '70.12(경과년수: 47년)

○ 선정사유 : 사용승인 이후 37년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, 구도심 핵심시설로 리뉴얼 시 상징성이 크고 주민친화시설 설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. 또한 지자체 재정이 건전하여 빠른 사업추진 가능

나. 경상남도 합천군청사

○ 위치: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337



- 대지면적: 14,703㎡
- 건축면적: 2,599㎡
- 건폐율(현행/법정): 17.58% / 60%
- 용적률(현행/법정): 53.26% / 250%
- 사용승인일: '78.1(경과년수: 39년)

○ 선정사유 :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4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청사 운영이 필요하고,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예정

다. 충청북도 진천군 전통시장

○ 위치: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
읍내리 120-4

- 대지면적: 3,669m²
- 건축면적: 976m²
- 건폐율(현행/법정): 26.6% / 60%
- 용적률(현행/법정): 50.48% / 250%
- 사용승인일: '76년(경과년수: 41년)



- 선정사유 : 전통시장 이전에 따라 군에서 건물을 우선 철거하였으며 유희 공유지의 체계적 개발 필요, 복합문화시설 설치 시 충북 진천·음성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문화수요에 대응하고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- * 인구 증가율 : 충청북도내 1위, 문화예술회관 설치 시 국비 20억원 지원 예정